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

박종국 (주)성아엠이씨 대표이사

35년간 건축기계설비 분야의 전문 기술인으로서 공기조화설비, 위생설비, 소화설비, 자동제어설비 등 설계 시스템 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주)성아엠이씨 박종국 대표이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경력철학을 들어본다.

- 일 시 : 2008년 10월 30일 10:30
- 장 소 : (주)성아엠이씨 회의실
- 참석자 : 박종국 대표, 한국기술사회 장흥진 교육본부장, 김경수 과장, 구수연 사원

■ 사장님의 주요 약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1982년 건축기계설비기술사를 취득하고 1998년부터 건설교통부 중앙건설기술 심의위원, 서울시, 경기도, 성남시, 구리시, 시흥시 등 지방자치단체 설계 심의위원을 역임했습니다. 2006년 한국설비기술협회 회장, 대한설비공학회 이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회 회장, 엔지니어링진흥협회 이사, 서울지방법원 민사사건 조정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설비기술협회 고문, 서울시 건설 기술심의위원, 한국기술사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설계표준화, 표준공사시방서 개정, 건축기계설비 설계 기준 심의 등 엔지니어링 기술 발전에 한층 더 노력한 결과, 2006년에 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최고 과학 기술인 후보자로 선정되었고, 금년 10월에는 산업포장을 수여받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 기술사로서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대병원, 아산중앙병원, 해운대백병원, 일산백병원 등 다수의 병원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제가 수행한 건축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아산재단 중앙병원 동관 설계 프로젝트입니다. 짧은 공기 내에 준공을 해야 하는 일정 때문에 실제 설계 시 현장에 투입되어 Fast track으로 설계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병원이라는 특수설계 건축물을 설계와 시공이 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검토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은 시행착오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참여했던 저희 직원들을 독려하여 무사히 정해진 시간 안에 마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 **향후 신규로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현재 국내의 설비 프로젝트는 90%가 완공되어 더 이상 시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베트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리비아 등 해외진출을 목표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해외에 진출을 하려면 영예회화가 가능한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 유치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리분야로의 진출도 계획 중입니다. 건설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설비단독으로는 감리 수주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감리협회에서의 규정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책임감리 수주를 못하면 감리업체 자격이 박탈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년 내에 수주를 하는 것은 현실상 어려워, 법 개정을 위하여 감리협회와 교섭하고 있는 중입니다.

■ **현재 직원 수와 연간 매출액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주)성아이엠씨는 설계사업부와 T.A.B사업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T.A.B사업부란 건축설비에 있어서 건축설비의 시험(Testing), 조정(Adjusting), 균형(Balancing)을 하는 작업으로서 설계치와 부합되도록 빌딩의 모든 환경 시스템을 검토 측정, 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설계사업부에는 약 50명 정도의 직원이 있고, T.A.B사업부는 20명 정도 있습니다. 매출액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직원 1명당 1억원의 매출실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평소의 생활신조나 좌우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준비된 자가 항상 승리한다가 저의 생활신조입니다.

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남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준비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하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삶이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최선을 다해 살겠다는 결심으로 계속해서 싸워야 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항상 준비된 자세로 임해야만이 승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시지요?**

사랑스런 아내와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습니다. 아들은 공인회계사(CPA)를 취득하여 현재 삼일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딸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여 미국의 소프트웨어 제조회사 오라클에 재직 중입니다. 딸과 아들 모두 아직 미혼인 상태인데, 가능하시면 어디 괜찮은 분 소개 시켜주세요.(웃음)

■ **끝으로 최근에 한국기술사회 부회장으로 임명되셨는데요. 기술사회와 기술사 후배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조언해주세요.**

9월에 취임해서 아직 업무파악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업무파악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해서 회장님을 보필하겠습니다.

기술사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기술사 자격취득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기술사 자격 취득 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Global)시대이기 때문에, 영어실력을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자기계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쁜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